

Cidariini족의 생물지리학적 연구(나비목: 자나방과)

최세웅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Cidariini족에 속하는 7속을 이용하여 전북구(Holarctic) 및 인도-중국(Indo-China)지역에 분포하는 생물의 분지생물지리학적(cladistic biogeographic)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용된 7속은 *Cidaria* Treitschke, *Thera* Stephens, *Pennithera* Viidalepp, *Heterothera* Inoue, *Callabraxas* Butler, *Gandaritis* Moore 및 *Eulithis* Hubner 이다. 분석은 11개의 지역을 이용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각 분류군의 분포역이 2개이상 겹친 경우로 하였고 COMPONENT 2.0 (Page, 1993)을 이용하였다. 연구목적은 11개 지역간에 상하계층구조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며, 둘째는 분산(dispersal)에 의해 분포가 이루어진 경우를 찾아내는 것이다. 분석결과 11개 지역간의 유사관계는 현재의 지구상의 모습과 일치하였다: (North America, (Europe, (northern India, (southwestern Asia, (Baikal area, (south China, (Taiwan, (Russian Far East, Japan)))))).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3개의 vicariance를 가정하는데 북미와 구북구간, 구북구의 서쪽과 동쪽, 그리고 인도북부와 나머지 아시아대륙이다. 분산을 통해 현재의 분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동아시아지역내의 분포로 Baikal지역 또는 South China에서 Russian Far East로 그리고 Russian Far East에서 Japan으로 등이다.